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
	보도일시	2006.05.04(목) 21:00부터	
생 산 일	2006.5.4(목)10:00	생산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담당과장	문홍성(T:2110-2501)	담 당 자	장도환(T:2110-2503)

제 목 :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주요성과

1. 개 요

- 5.4(목)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역내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ASEAN+3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어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한층
진전시키는 성과를 도출
- 금번 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는 CMI등 그동안의 협력
사업들을 완결하고 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장기적 비전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정책논의를 정부당국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또한 한중일 3국이 미래 경제통합의 비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ASEAN+3를 통해 추진해나가는데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됨

2.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의 주요성과

- ① 위기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가 완성
됨으로서 사실상 역내 위기 재발방지의 목적이 달성

i) 상호자금지원 규모 : 395억불(05년) → 750억불^(*)(06.5월)

* 거대 외환보유액으로 위기 발생이 희박한 4개국(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 총 외환보유액(1,918억불)의 약40%에 상당함

ii) 위기발생시 단 한번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자금지원국들이 이틀내 즉각 소집되어 1주내 (최대 2주내) 지원을 결정하고 필요금액을 동시 지원하는 체제 구축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

* 기존 CMI는 위기 당사국이 지원국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지원효과도 반감

⇒ 모든 참여국들의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통해 환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② 위기 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공동 감시체제 구축 및 가동

⇒ 경제 동향의 상시 점검을 통해 회원국들간의 정책공조 기능이 강화되고 위기발생 징후를 조기에 예측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대응능력이 제고됨. 또한 자금 수혜국들의 Moral Hazard에 대한 통제도 강화

i) 특히, 아국이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역내 위기감시를 위한 공동 대응 그룹(ETWG)을 구성하여 공동의 위기 감시능력 강화 (현재 7개국에 감시기구 설치)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은행등과 공동으로 위기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영중 이고 당시 우리가 개발한 모형을 기본으로 한 표준모형(ADB 개발)을 중국, 필리핀, 인니 등 7개국이 위기 감시를 위해 사용중

ii)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의 경제상황 감시와 정책공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③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진전

-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규모는 9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

* '97(4,050억불) → '03 (1조 2750 억불) → '04 (1조 5290억불)
→ '05(1조 7350억불)

⇒ 역내 저축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재투자를 촉진함으로써
i) 아시아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i) 환위험을 축소하며 iii) 기업들의 저리의 자금조달을 유도

- i) 2004년 엔화 표시 Primary CBO 발행에 이어 바트화(태국), 링깃(말레이시아), 페소화(필리핀) 및 위안화(Panda Bond)등 역내 로컬 통화로 표시된 채권 발행을 활성화

- ii) 역내 신용보증 및 투자기구의 신설, 결제기구의 설립, 신용 평가기관간 공조 시스템 구축, 아시아채권의 표준 규범 마련 등 채권시장의 infra 구축을 촉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로 본드마켓 같은 국제채권 시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색

3. 미래에 대한 구상 합의

- ①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상호경제감시체제와 상호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 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

- 회원국들이 보유 외환을 실제로 출연하거나 출연을 약정하는 다자간 단일 협정 형태(CMI의 다자화)의 지역금융 협력체제 출범

- 이 경우 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상시적인 경제감시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사무국 필요성이 부각됨

② 「아시아 공동통화 창설」을 위한 논의를 개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 국가간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실물 및 금융 시장의
확대 효과가 발생

- 회원국간 환율 안정을 이루기 위한 역내 환율정책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한중일 3국
주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4.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평가

- ①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급진전된 배경에는 금년 공동의장국
(캄보디아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뚜렷한 방향과 목표
하에 주도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인한바가 큼

- 이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허브구상과 동아시아협력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긴요하다는
한부총리의 정책기조가 약 1년간의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은 것임

- ② 동아시아의 미래 지역통합논의를 선점함으로써 동 구상이
현실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우리나라가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음

* 지역 금융기구 사무국 설치 논의시 한국내 유치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사무국 유치시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과 유수 금융기관들의 한국내
주재활동이 대폭 증가

- ③ ASEAN+3 공동의장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구와 인프라의 수출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전망

- 아세안 재무부/중앙은행 중견 공무원과 한국의 공적 금융 기관(증권거래소, 금융예탁원, 자산관리공사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의 개시
 - 매년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개도국 국제금융/금융 담당자들과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관과의 공고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
- 캄보디아 재무부와 한국 증권거래소간 「캄」 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협력사업 개시
 - 향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설립될 경우 이를 발판으로 한국 증권거래소의 역내외 개도국들에 대한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I	제9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006.5.4, 인도 하이데라바드)
---	---

서론

1. 우리, ASEAN+3 재무장관들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캄보디아 재무장관 H.E. Keat Chhon(키토 촌)의 주재하에 우리의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2. 우리는 경제 및 금융 발전 동향에 대한 의견과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ASEAN+3 공동연구 등 역내 금융협력의 전전사항을 검토하고 역내 협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최근 역내 경제 및 금융발전

3. 우리는 우리의 자체적인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간의 경제동향 전망과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ERPD(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와 국제금융기구의 평가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가 견고한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전망도 밝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유가의 지속, 세계무역 불균형의 확대, 국제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추세, 조류 독감의 확대 가능성 등의 잠재적인 역내 경제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4. 우리는 또한 지역내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아시아 금융시장의 개방도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과 경제구조개혁의 가속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정책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특히 최근 유가 급등을 감안, 우리는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강화

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2004년 제주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작된, (제2 단계 CMI 체제라고 알려진) 역내 자금지원체제의 강화 방안이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여기서 우리는 CMI의 두 가지 주요 목표인 1) 역내 단기 유동성 문제의 해결 및 2) 기존 국제금융체계와의 보완 관계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함.
 - (i) **스왑발동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의 채택** : 모든 스왑제공국들은 위기시 양자간 스왑협정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동시적이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함.
 - (ii) 기존 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역내 전문가 그룹(GOE)과 경제·금융 감시를 위한 실무그룹(ETWG)을 설립함. GOE는 역내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역내 경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임. 또한 ETWG는 경제불안정 요인의 조기 발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전·확산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iii) 역내 자금지원의 규모가 현재 750억불에 도달하여 1년전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하였음. 이스탄불 합의를 반영하여 CMI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이후 9개의 양자간 스왑계약이 개정되었음.
6. 유동성 자금지원체제의 진전을 위해 우리는 Deputy(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에게, 지난 기간동안의 우리들의 개선노력에 기초하여, “새로운 Task Force”를 설립하여 보다 진전된 체제(CMI 다자화 또는 Post CMI)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는 바임.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내 감시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음.

7. 지난 1997년 이후 지역통화 채권시장의 규모가 4배 이상 성장한 것을 볼 때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음. 2004년 Pan-Asia Bond(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엔화 표시 CBO)발행에 이어 (i) 바트화 채권, 말레이시아 링깃 채권, 필리핀의 페소화 채권, 위안화채권(Panda Bond)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외국기관에 의한 역내통화표시 채권 발행, (ii) 유동화를 통한 역내 통화표시 채권 발행 등이 이루어졌음. 우리는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아시아 통화로 구성된 basket 채권과 cross-border 지역 통화채권 발행 등의 연구가 아시아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고 있음.
8. 우리는 역내 신용보증 및 투자 메카니즘, 결제기구, 신용평가, 아시아 채권의 표준규범 마련 같은 시장의 인프라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이 있음을 확인함.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이 아시아 국제채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함. (아시아 채권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이 정기적인 자체평가와 정보공유를 통해 아시아 채권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극복할 것임.
9. ASEAN+3 연구그룹활동을 통해 우리는 지역내 연구기관들의 노력이 유용함을 인식함. 2005-2006년의 연구보고서들은 ASEAN 사무국, ADB 및 관련된 국가들의 공식 website등을 통해 공개될 것임. 우리는 2006-2007년간 연구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의 촉진 : 아시아 통화단위 창설을 위한 노력”(일본 연구기관 주도), “아시아 지역의 금융 점업화 : 최근 추세와 국제금융시장 발전에서의 합의”(한국 연구기관 주도)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승인함.

ASEAN+3와 국제금융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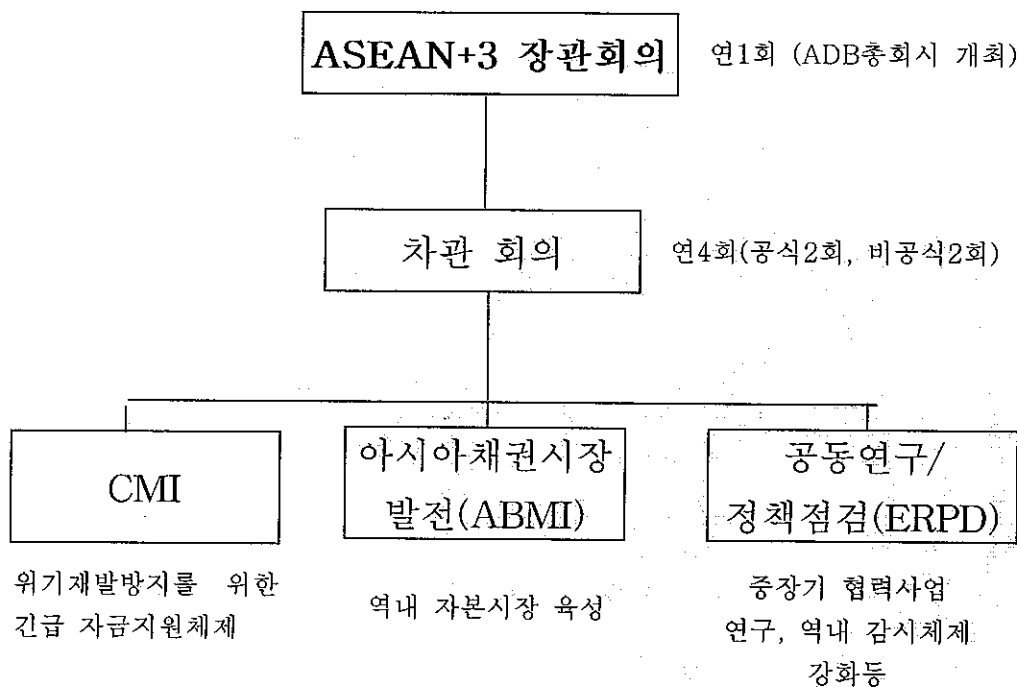
10.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브레튼우즈체제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IMF 쿼타의 특별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IMF 총재가 IMFC 및 이사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차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MF, 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촉구함. 반면 우리는 IMF의 정책결정과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11. 우리는 IMF와 ADB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역내 감시체계강화와 관련된 ASEAN+3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함. 특히 오늘 아시아 지역경제 전망에 대한 ADB 구로다 총재의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ADB의 아시아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함.
12. 우리는 캄보디아와 한국정부가 ASEAN+3 재무장관 process의 공동의장국으로 훌륭히 회의준비를 해준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인도정부의 회의개최와 관련된 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함.
13. 우리는 2007년 일본 교토에서 만나는데 합의함. 2007년 ASEAN+3 재무장관 process는 태국과 중국이 공동의장을 수임키로 함.

II ASEAN+3 재무장관회의 Process

- '97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 역내 위기재발 방지 노력을 전개하기 위해 정상들의 합의로 99.4월 필리핀에서 제1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 (금년이 9차 회의)

< ASEAN+3 재무장관회의 process 체계 >



- ASEAN+3 장관회의(연1회), 차관/부총재 회의 (연4회 : 공식 2회, 비공식 2회)와 3대 금융협력 분야^(*)의 사업이 있음

* CMI, 아시아채권시장, 중장기 공동연구 및 경제 정책 점검 및 정책공조 대화 채널 (ERPD)로 구성

- 공동의장국(2개국 : 한중일중 1개국, 아세안중 1개국)은 비공식 차관회의(연2회)와 3대 금융협력분야 실무회의를 주관

* 05년 (일본, 라오스), 06년(한국, 캄보디아), 07년(중국, 태국,예정)

II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관련
-----	---------------------

① CMI 체계란?

□ 역내 긴급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의 일환으로 '00.5.6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전격 합의

□ CMI의 기본 구조

○ 역내 회원국 중앙은행간 체결된 Swap(BSA) 거래^(*)

* 위기시 자국통화와 국제통화(달러 등)를 일정시점에서 결정된 환율로 차입하고 계약기간 경과후 다시 상환

○ 위기 당사국이 외화 유동성 문제 발생시 Swap 계약 체결국에 요청하고 계약 체결국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쌍무적 지원체제

□ 기존 CMI 체계의 한계

○ 위기 당사국이 각각 예정 지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쌍무적 지원체제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지원효과도 분산

② 이번 회의로 CMI 한 Chapter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04 제주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기존 CMI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기로 결정

- ASEAN+3 13개국 재무부/중앙은행 국·과장급으로 이루어진 실무 회의를 구성하여 '06년까지 총 8차의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금번 장관회의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

□ 효과성이 개선된 CMI의 주요 내용

① 위기시 긴급자금지원 규모 배증 : 395억불(05년)→750억불(현재)

* 아국의 위기발생시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최대 220억불 수혜가능

* 750억불의 의미 :

- ASEAN+3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총 22,118억 달러)의 3.4% ('06.2월말)
- 거대외환보유액의 보유로 위기 발생이 희박한 4개국(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의 총 외환보유액(총 1,918억 달러)의 39%

② 위기발생 즉시 참여국들이 즉각 소집되어 동시에 자금지원을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 위기발생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예정 지원국이 참여하여 합의나 다수결에 의해 신속하게 지원 결정

⇒ 모든 참여국들의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통해 환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③ 사전 위기 방지를 위한 감시기능 강화 : 기존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로 구성된 경제 정책 점검 및 정책공조 대화 채널 (ERPD)의 기능이 제고

- 한국이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바탕으로 7개국에 설치된 Surveillance Unit^(*)간 공동감시 체제 구축
 - * 한국의 경우 국제금융센터가 동 기능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국이 확대될 예정
- 또한 ERPD의 정책지원을 위해 역내 국가의 경제 전문가그룹(Group of Expert)를 운영

③ 금번 회의시 한국이 한 역할은?

□ 총 8회의 실무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주도

- 우리나라는 강화된 CMI의 핵심인 집단적 의사결정 방안의 idea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의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제안
- 06년 2회의 실무회의의 의장국(의장 : 국제금융심의관)으로서 강화된 CMI의 최종안에 대한 13개국 합의를 도출하여 확정

□ '06년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공동의장국의 역할

- * ASEAN+3 장관회의(연1회), 차관회의 (연4회 : 공식 2회, 비공식 2회)와 3대 금융협력 분야 (CMI, 아시아채권시장, 중장기 공동연구 및 경제 정책 점검 및 정책공조 대화 채널 (ERPD))로 구성
 - 이중 공동의장국(2개국 : 한중일중 1개국, 아세안중 1개국)은 비공식 차관회의(연2회)와 3대 금융협력분야 실무회의를 주관
-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공동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금년 5월까지 CMI 실무회의 2회, ABMI 실무회의 2회, 공동연구 그룹회의 3회, 차관회의 3회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지원
 - 하반기에도 수차례의 회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할 예정

4 앞으로 CMI의 미래는? (“Post CMI”)

- 양자간 Swap 계약 형태가 다자간의 단일 계약 형태로 전환되는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

(⇒ “CMI의 다자화” 또는 “Post CMI”)

- 이 경우 각국 외환보유액의 일정부분 출연을 약정 (earmarking)하거나 직접 출연(reserve pooling)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사무국이 구성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상시적인 Surveillance 전담 기구 설립

- 전문가 집단이 구성, 상시적으로 역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며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

- CMI의 다자화와 상시적인 Surveillance 기구가 결합된다면 이는 역내에서 상시적인 경제상황 감시 및 필요시 상호자금지원이 가능한 상설적인 지역금융기구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 동 기구가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조정기능까지 수행한다면 동아시아 통화통합 논의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음

□ Post CMI의 가능성

- Post CMI 체계가 국제금융질서를 보다 안정된 체계로 이끌 수 있다는 이론적·실제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더 나아가 높은 합의수준을 이끌어 내기 위한 leading 국가들의 적극적 노력과 자기희생이 필요

IV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노력 (ABMI)

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노력이 무엇이고 그동안의 진전사항은?

-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방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

○ '03.2월 ASEAN+3 차관회의시(동경) 아국이 '증권화 및 신용보증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제안한 이후,

- 증권화 · 신용보증 · 신용평가 · 결제 등 분야에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활동중

-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규모는 9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

* '97(4,050억불) → '03 (1조 2750 억불) → '04 (1조 5290억불) → '05(1조 7350억불)

- ABMI는 크게 1) 로컬통화 표시채권의 발행을 확대하여 아시아채권 시장의 활성화하는 방안과 2)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infra 구축^(*) 논의로 전개중

* 역내 신용보증·투자제도, 결제제도, 신용평가, 아시아채권 표준규범 마련등

2 금번회의에서의 성과는?

□ 채권발행 확대 노력

- '04.12월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엔화표시 Primary CBO**(100억엔 규모)이 이루어진 이후, 국제기구에 의한 바트화(태국)/페소화(필리핀)/링깃(말레이)/위안화 표시 채권(Panda Bond)의 발행이 이루어짐
- 금년 엔화표시 **P-CBO 제2차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사항)

□ 인프라 구축 논의

- ①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 Credit Gap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현재 구체적인 option 들이 협의중
- ② 역내 결제제도 : 역내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중
- ③ 신용평가기관 : 아시아 각국의 신용평가기관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바젤기준에 따른 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산정이 연구중
- ④ 아시아채권 표준규범 마련 : 아시아 역내 국제채 (유로본드) 시장 설립을 위해 각국 채권시장 발전에 대한 자체평가와 정보공유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진행중

- 현재 각 실무그룹들에 전문기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idea와 실행방안을 모색중

V	ASEAN과의 협력강화 방안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	------------------------------------

① 최초로 ASEAN 재무부/중앙은행 증권공무원을 초청하는 연수 개최

- ☐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아세안 진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ASEAN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 금년 6.18-7.15간 한국에서 ASEAN 재무부/중앙은행 과장 (부과장)급 공무원 20명을 초청하여 교육 및 세미나
 - 한국 경제 및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각국간의 실제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 ☐ 동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며 ASEAN 재무부/중앙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②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개설을 위한 협력

- ☐ 금년 ASEAN+3 재무장관 process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5.4 하이데라바드 현지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 개최
 - 특히 캄보디아의 숙원사업인 증권거래소 개설을 위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지원 등을 포함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금융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